

목장교회 나눔지

2019. 3. 24.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10분)

· 당신이 긴장을 풀기 위해 즐겨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장 장마비와 같은 찬양과 경배(5분)

찬
송
가
3
0
1
장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
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
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해매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
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잡
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
송
가
0
6
4
장

1.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
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 소리 끊임 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 들
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하여라
3.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
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
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4.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
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불러 주께 영광돌리세 아멘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0분)

요한계시록 2장 18-29절 이룬교회되게하소서(4) “관용의 도시, 차별의 종교”

설
교
내
용

A.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18.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
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
게 하는도다 21.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도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

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4.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
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25.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이기는 자와 끝
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B. 말씀요약

이 시대는 관용주의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상대를 용인하고 수용할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용과 관용주의는 다른 것이다. 관
용이 내 나쁜 것의 관점과 생각을 고수하되, 남들도 그들의 것을 지켜갈 권리가 있음을 인
정하는 것이라면, 관용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든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과 생활방
식을 받아들이고 찬성하고 정당하게 여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관용주의가 자리하게되
면서 종교와 윤리의 영역에서 절대 진리는 설 곳을 잃고 말았다. 모든 사람의 서로 다른
견해가 동등된 가치를 부여받는데, 진리가 존재할 자리가 있겠는가? 관용은 있어야 하지
만, 관용주의가 진리를 삼켜버리는 일에 있어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시대는 악을 조장하지는 않지만, 악한 문화를 방관한다. 방관을 저지하는 이들을 ‘공
포증phobia’에 사로잡혔다고 비난한다. 내 입장을 고수하면 ‘혐오’한다.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주장하면 ‘편협한 사고를 가진 광신자’로 불리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2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는 사실이다.

두아디라는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었다. 주변의 크고 위엄있으며, 왕의 이름을 딴 도시
들의 지랑거리만큼 훌륭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 지역은 소위 불루칼라 지역이라
고 불렸다. 길드(Guild/조합)를 중심으로 한 공업 소도시였다.

두아디라 교회는 충성된 신자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악한 무리와 그것을 추
종하는 관용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세벨(음란/우상 숭배)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공식적
인 직함도 없이 스스로 선지자라 이름하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빙자하여, 정식 교회 지
도자들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교훈을 퍼뜨렸다. 그 결과로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는 이방
우상을 섬겼으며, 음행하는 데 앞장섰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그들
의 선동을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세벨과 따르는 무리들은 쫓아낼 당사자이지, 품어주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이가 아닌 것이다.

편협하고 좁은 식견을 가진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질까 두려운가? 두려워하지 말
라. 오히려 불경건하고, 불필요한 방관과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염시켜 해치게

할 뿐 아니라, 악한 자들과 함께 심판받게 될 곳으로 인도하게 한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한다. 좋은 이미지를 선호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그릇된 정의를 내세워 진리를 부정한다면,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주장된다면, 용감하게 나서서 얼굴을 붉힐 줄 알아야 한다. 거짓 선지자와 그 세력의 농간을 용인하지 말고, 일어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과 좋은 사람은 다른 법이다. 좋은 사람이미지를 위해 좋은(옳은) 행위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설마 우리교회에 미혹의 세력이 자리하겠어, 우리 교회는 다르겠지'라는 불감증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이다. 어느 교회든 미혹의 세력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다. 우리교회도, 우리 안에도 신앙을 미혹하는 어떤 세력도 침투할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사람에 매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멋진 카리스마, 고액의 헌금은 우리 눈을 미혹되게끔 한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에게 이끌리기도 한다. 그러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용해서 종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가 있다. 사람의 속마음과 의도는 알 수가 있다. 사람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뒤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셋째, 교회는 결코 나쁜 가르침을 관용해서는 안 된다. 반 성경적, 반 기독교적 법안 뿐 아니라,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가르침은 용납해서도, 그것을 묵인해서도 안된다. 분명히 선을 그으라. 진리를 사수하는 일은 생명을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나 라 리 민	나 눔 1	두아디라교회가 칭찬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나 눔 2	책망을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나 눔 3	예수께서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15분)

- 담임목사님의 영육의 회복과 재충전, 새 비전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도록.
- 봄맞이 대심방을 위하여
- 육신과 영적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 김낙기안수집사 : 평안과 영육의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 주시도록.
- 박태식집사 : 콩팥과 허리의 치유와 고통의 회복을 주시도록.
- 정기헌권사 : 항암치료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

[교회 광고]

- ① 큐티 동역자 100명 세우기 II 올 한 해 100명의 큐티동역자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모든 목장에서는 큐티를 구입하여 나누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목원들을 가입하도록 안내해주시고, 매일 새벽 묵상시 1-2줄 답글을 달아 서로 독려하는 일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교사 및 찬양대원 모집 II 영유치부/어린이부/청소년부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반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닌, 간식준비, 예배 준비를 돕는 일입니다. 많은 헌신이 아닌 주일 예배 헌신이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할렐루야 찬양대는 칸타타를 연주합니다. 일시적 단기적 찬양대원 및 지속적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섬김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봄맞이대심방 II 3/29(금) 착한목장 | 4/13(토) 민들레목장.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 - 주기도문

[목장별 사역메모]